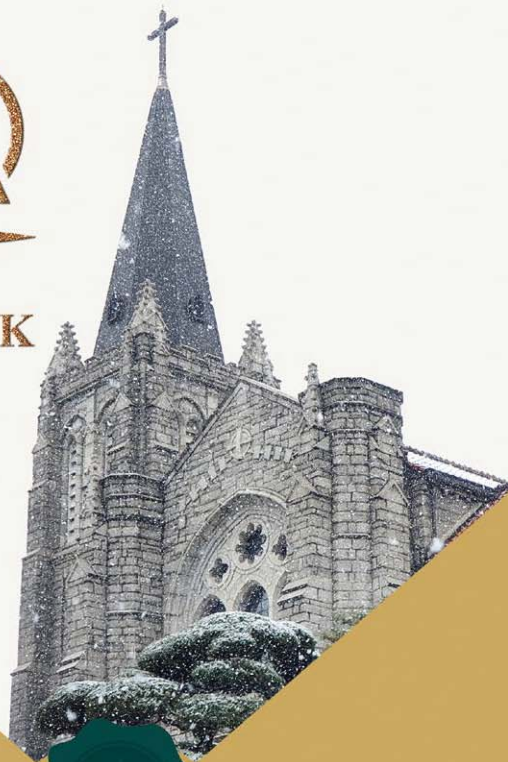


# 만남



SINCE 1945  
YOUNGNAK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12 2025  
통권 620호

##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 표지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의 감사가 담긴 카드를 조심스레 열어봅니다. 지나온 날마다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로 세워져 세상 속에 기쁨과 빛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 12월 목회력

- |       |                                  |       |               |
|-------|----------------------------------|-------|---------------|
| 05 금  | •연합권찰모임 하반기 종강                   | 06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 07 주일 | •대림절 둘째 주일, 교회창립 80주년, 임직식       |       |               |
| 14 주일 | •대림절 셋째 주일,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제직회 |       |               |
| 21 주일 | •대림절 넷째 주일, 유아세례식                | 24 수  | •성탄절 음악예배     |
| 25 목  | •성탄절, 전세대가 함께하는 성탄예배             | 28 주일 | •은퇴식, 사회봉사주일  |

# 만남

2025년 12월호  
통권 620호

##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은혜의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김운성

### 특집 I 구원의 기쁨, 성탄!

04 성탄절이 기쁜 이유 최한윤

08 뻘뻘뻘, 그러나 참 순수한 성탄 고백 사랑부

### 특집 II 은혜로 이어온 80년

11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교회 박경수

14 영락교회의 정체성과 전통 이영선

16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전임 교역자 초청 홈커밍데이 열려 김경옥

18 영락의 은혜를 품고 고척에서 피운 감사의 사역 차동혁

20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영락교회 김응신

###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22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며... 김순미

26 반공 중시한 한경직,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수호 박명수

### 특별기고

30 연세대 캠퍼스 한복판에 전도부스 김종찬

### 만남 그리고 사람들

32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류주현 앵커 인터뷰 김성문

36 고통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이선일

38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다 김승겸

### 청년광장 / 다음세대

40 “나는 믿습니다!” 김단비

41 ‘의심에서 믿음으로’ 김희수

### 당끝까지 이르러

42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김상학

4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김준겸

46 현재 나의 모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김동천

### 영락의 울타리

48 첫 사역의 눈물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인도하심의 은혜 지산

50 무너진 자리에서 감사로 계정림

52 2025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결과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58 안수집사회 야유회, 아쉬움을 넘어선 은혜와 교제 안창진

59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회 강경화·강순천

60 난임, 최적의 치료전략은 현명한 준비와 제때의 도움 정자연

63 2026년 달력 제작을 돌아보며 이신일

64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문화선교

### 교회소식

65 추수감사주일 예배 & 특별새벽기도회 외

68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 이은혜

69 새아기·새가정



## 은혜의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김 윤 성 담임목사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영락교회 80주년으로 맞이한 202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영락교회 성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저는 올해가 우리 각자와 교회에 기념비적 해가 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꾸러미를 풀어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종합선물세트와 같았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 은혜가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해 1월을 기도드림으로 시작했고, 『나의 기도』라는 예쁜 기도 노트 한 권씩을 설렘으로 받았습니다. 그 위에 사각사각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적고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읽어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룩한 순례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벽기도회부터 매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배 인도자, 기도 담당자, 찬양대, 설교 담당자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주차 봉사자, 식당 봉사자, 안내 위원 역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영락기도대는 예배실 아래서 매주 기도했고, 강단의 꽃은 봉사자들의 수고로 늘 아름다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던 예배 출석도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영상 구독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4월의 산상기도회는 큰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1월 기도드림의 달에 있었던 특별금요기도회, 2월 자녀와 가정을 위해 모였던 특별금요기도회, 7월 두 주에 걸친 토요일에 영락기도원에서 모인 산상기도회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소그룹을 위해 늘 여기저기서 모였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일은 물론이요, 주중에도 함께했습니다. 전도폭발훈련, 상담부의 다양한 사역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새벽기도회 영상과 함께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따라 걸었고, 말씀 산책을 아침 냉수 한 그릇처럼 마셨습니다.

교회학교는 그 어느 해보다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영아  
부부터 젊은이들까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체험  
했습니다. 단기 해외 선교 프로그램들을 소화했습니다.  
3040세대의 모습이 교회 곳곳에서 보여 기쁩니다. 이  
들이 교회 여러 곳에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고무적입  
니다.

선교부와 남선교회·여전도회의 헌신 또한 놀라웠습  
니다. 특히 올해 선교대회는 선교사님을 모두 초청하여  
현장의 소식과 눈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수고를 통해 놓여촌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MK사역,  
문화선교가 이루어졌고, 의료선교부는 올해도 명절 연  
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아프리카  
부룬디까지 다녀왔습니다.

2025년은 교회 창립 80주년으로 여러 사역이 이루  
어졌습니다. 2월에 첫 예배를 드린 사송영락교회는 이  
미 230여 명이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거점 교회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락꿈터  
에는 아이들의 기쁜 소리가 가득하고, 국제찬양제와 영  
락찬양제는 황홀한 잔치였습니다. 베다니광장, 만남카  
페, 1층 친교실, 제2식당, 소극장 등이 새 모습을 드러냈  
습니다. 여러 곳의 화장실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디지  
털역사관이 개관되어 영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80년사가 집필되는 중이며 한경직  
목사님 평전 영문판도 집필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북별  
관을 구매해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도 이루어졌습니다.  
120여 명의 역대 교역자 부부가 참여하여 흠커밍대회  
를 감격으로 치렀습니다.

영락학원, 대광학원, 보성학원의 8개 학교와 영락사

##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회복된 모든 사역

영락 80주년, 은혜로 채운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는 12월 되길...

회복지재단의 산하 기관들도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경직기념사업회도 사학미션네트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확산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소 단체들도 그 본래 목적을 따라 장학금 전  
달, 교도소 전도 등에 힘써 왔습니다.

올해도 젊은이들은 결혼했고, 자녀를 낳아 4부 예배  
시간에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모여 청년  
선교회를 구성했고, 아기를 출산한 부부들의 모임이 준  
비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젊은이들의 모임이 시작되  
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경조부는 천국으로 가신  
성도들을 영락동산에 안장하기까지 슬픈 일을 잘 감당  
하셔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3년 만에 교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10회 총회는 우리 교회가 스물세 번째로 개최한 총  
회로서 그 영적 분위기, 성도들의 섬김, 회무 진행이 역  
대급으로 탁월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꾸러미는 시편 23편 1절  
처럼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  
째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입니다. 내년에도 부족  
함이 없는 은혜를 주셔서 81주년을 마치 개척교회를 시  
작하듯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탄생하신 주님의 은혜입니  
다. 한 해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더하여  
넘치는 감사로 12월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만남**





# 구원의 기쁨, 성탄!

성탄이 오면 화려한 불빛 속에 캐럴이 들리지만  
우리는 함께 웃고, 또 울며 지내 온 시간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전쟁과 분단, 팬데믹과 불안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의 어둠 한가운데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참된 왕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탄생은 잠시 기분 좋은 축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내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번 성탄에는 그 사랑의 왕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열고,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의 이유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함께 더듬으며  
우리 공동의 기억을 새롭게 엮어 가길 소망합니다.



## 성탄절이 기쁜 이유



최한운 목사  
마포·영등포교구  
경조부

성탄절의 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눈앞에 떠오르고 또 펼쳐지는 장면들은 우리에게 웬지 모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쁜 장식들로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분위기를 완성하는 조명과 불빛들, 때마침 내려주는 하얀 눈,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캐럴,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들, 온기 가득한 실내에 모인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 속에서 오늘날만큼은 싸움과 경쟁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실제 이러한 마음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서로 적으로 만난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12월 25일 하루만큼은, 서로를 향한 총부리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성탄절을 보내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금 더 성경적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하늘의 별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이 고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모습. 캄캄한 밤 홀연히 나타나 자신들의 곁에 선 천사로부터 ‘오늘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 한편, 구유 위에 누여 계신 아기 예수님, 그 곁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있었을 것 같은 여러 동물의 모습까지.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어느 지역의 사람들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축하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성도 된 우리 어깨가 괜스레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전인류 역사의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자랑스럽고, 예수님의 탄생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에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앞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함께 구주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나의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 마구간 너머 보이는 죽음을 향한 탄생

그러나 이러한 성탄절의 이미지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모습들도 혹시 보이시는지요?

그 마구간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같은 시각, 베들레헴 저 너머의 모습도 함께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매달리실 십자가가 될 나무가 심어져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사용될 못이 철광석으로부터 연마되어 화덕에서 달구어지고 망치로부터 내려쳐지며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를 한 여인의 자궁 속에 심으시고, 정치 조종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빌라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sup>1</sup> 아니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아기 예수님께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시는지요?

이유가 있는 탄생

목적이 있는 탄생

계획이 있는 탄생

1 ‘맥스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내게로 오셨다』, p132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을 함께 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중얼거리는 세례 요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깜빡거리며 서로 바라보는 제자들.

거룩한 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심각하게 무언가를 논의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부탁하시고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겟세마네의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 복음의 본질, 그리고 구원의 기쁨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예 기록조차 못할 만큼, 복음서의 첫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시작’을

외칩니다. 그리고 8장부터 자기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생 이야기도 생략한 채, 급히 죽음으로 달려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마가의 복음서를 읽으며, 그가 선포한 ‘복음’, 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며, 이 죽음을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웬지 모를 따뜻한 분위기 때문도 아니고, 성탄절에 얽힌 추억 때문도 아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오늘 이곳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놀라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거룩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태복음 1:23)* **만남**





2025 성탄절 음악예배

# CHRISTMAS

크리스마스 송가 *Canticles*

Benjamin Harlan



백승현  
지휘



한은미  
오르간



김미경  
메조소프라노



양인준  
테너

합창 베다니찬양대 | 협연 호산나오케스트라

2025. 12. 24. WED 7:00 PM

영락교회 베다니홀

주최 영락교회 음악부 | 주관 영락교회 베다니찬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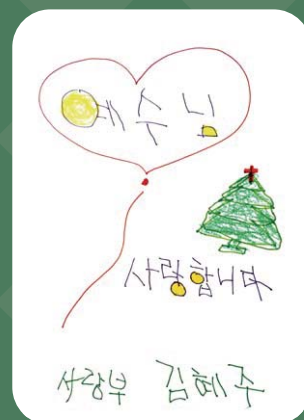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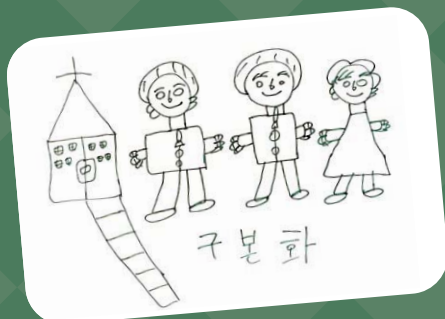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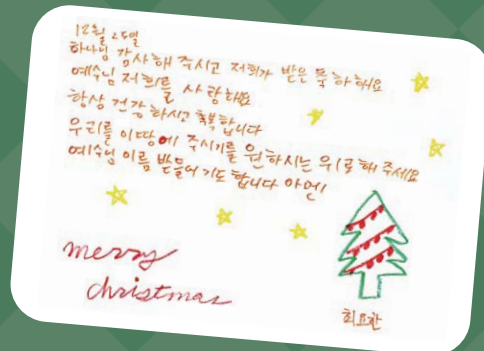


사랑의 감동

- 사랑부 학생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











특집 II

## 은혜로 이어온 80년

영락교회창립 80주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먼저 되돌아봅니다.

눈물과 기도,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 온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음과 섬김으로 도시와 열방을 비추는

영락의 발걸음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기억하며,

다음세대도 이 은혜의 역사를 책임 있게 이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으로 응답하는 교회

영락교회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0년이라는 세월의 나이테에는 많은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해방정국, 전쟁, 민주화, 고도성장의 온갖 풍상 속에서도 영락교회가 80년 동안 신앙공동체를 굳게 지키며 한국 교회의 나침반 역할을 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영락교회 신앙의 선배와 가족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의 결실일 것입니다.

### 역사는 공동의 기억이다

역사는 ‘공동의 기억’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겪으면서 그들은 한 공동체로, 한 민족으로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9절을 통해 그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후세에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든 것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겪었던 아픔과 고난, 자유와 해방의 기쁨,

역사 속의 이 모든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한민족이 됩니다. 유대인이든 한민족이든 실상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공동의 역사 경험입니다.

가족도 공동의 기억을 함께 나눈 공동체입니다. 어린 나이에 입양된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보다 어린 시절부터 희로애락을 함께 겪고, 자신이 성장통을 겪을 때 곁에서 함께 울며 기뻐해 준 양부모를 진정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합니다. 가족도 좋은 일, 슬픈 일을 함께 겪어냈을 때 진정한 가족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2장 46~50절에서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제자들이야말로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단순한 혈연을 뛰어넘어 공동의 기억을 나누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기억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도 공동의 기억 공동체입니다. 영락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은 수십 년, 최근에 오신 분들은 수년 동안 함께 부대끼면서 영적 가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함께 이겨냈을



박경수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것입니다. 그 시간의 나이트가 차곡차곡 쌓여서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가깝고 더 끈끈하고, 신앙과 기억과 경험을 함께 공유한 예수 가족이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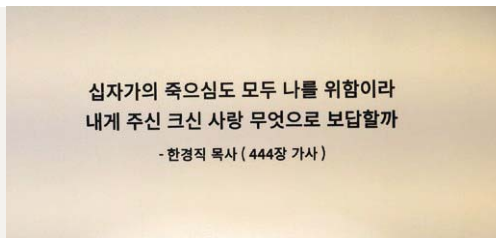
### 영락교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영락교회 80주년을 기념하는 원고를 부탁받고 교회의 홈페이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영락교회가 걸어온 길, 지금의 사역 모습과 현황,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등 영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로 살아냈구나.’ 하는 감탄과 존중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 중 순교자의 피가 흘렀고,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등 10여 개에 이르는 교육기관을 세웠고,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과 재단을 통해 섬김을 실천한 영락의 발자취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저력을 확인했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1995년 영락교회의 후원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에 한경직목사기념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의 경전을 훈련하는 학교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500명 이상의 생활관 학생들이 매일 6시에 새벽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고, 11시 15분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로 가는 벽면에는 한경직 목사가님 작사한 찬송가 444장의 가사가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영성생활관에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책임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예배당이 경건 훈련의 장이라면, 도서관은 학문 연마의 요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영락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입니다. 그동안의 성원과 후원에 대해 『만남』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정 내  
한경직목사기념예배당



한경직 목사님 기념공간, 한경직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 444장의 가사가 있는 예배당 벽면

지면을 빌어 학교의 총장으로서 영락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영락교회에 큰 사랑의 빛을 졌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었던 1987년부터 1989년 3년 동안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학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장학금보다 더 소중한 기억은 당시 남한산성에 계시던 목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후에도 개인적으로, 또 학생들과 함께 남한산성에 있는 목사님 우거처(寓居處)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 그리고 청빈과 겸손의 삶은 저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자와 신학생에게 큰 올림과 교훈으로 언제나 지나 남을 것입니다.

### 은혜에 책임으로 응답하기를

한국 교회에서 영락교회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락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선물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독일어로 선물이라는 단어는 Gabe입니다. 이 단어에 전치사 auf를 붙이면 Aufgabe, 사명 혹은 책무라는 뜻이 됩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영락교회가 은혜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락(永樂)이라는 말뜻처럼, 영락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 영락교회의 정체성과 전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대개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 “피난민 교회”, “대형 교회”, “한국의 대표적 교회” 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미래에도 영락교회의 정체성과 전통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선 영락교회는 더는 피난민 교회가 아닙니다. 피난민 1세대는 이제 거의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 자녀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 숫자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아직 대형 교회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쉽사리 자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도 지금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서 언급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외형적이며 피상적이고, 또 변해가거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락교회의 정체성과 전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영락교회의 4대 신앙지도원칙

영락교회는 네 개의 신앙지도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간의 표현상의 변화는 주셨으나 설교를 통해 이 네 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고, 또 목회 과정에서 이 원칙들을 지켜 오셨습니다. 또한 한 목사님의 은퇴 후에도 영락교회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락교회는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을 기본으로 삼아왔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내에는 극단의 원리주의로부터 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신앙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성서적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물론 문화와 기술의 변화가 예배의 외형적 모습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터하고 있는 복음과 경건성은 변할 수 없는 영락교회의 신앙적 전통입니다.

둘째로 영락교회는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을 전통으로 삼아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서는 신앙과 생활윤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설교를 통해 강조하셨으며 이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남한산성 우거처가 한 목사님의 생활윤리를 단적으로



이명선 원로장로  
강남교구  
연세대 명예교수, 통일과나눔 이사장  
전 한림대 총장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교회연합정신의 구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교단을 통해 다른 교회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최근 개별 교회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독립교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교회가 독립적 길을 갈 때 쉽사리 독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욕심에 의해 이단적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분열 역사 속에서도 항상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며 온 교회가 연합하여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자는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늘 교회연합사업의 중심에 계셨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영락교회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실천적 운동도 전개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어려움에 부딪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복지시설을 세웠으며, 북한 동포들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음통일을 내세우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과 동시에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보편적 인권 등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영락교회의 5대 본질

이러한 네 가지 신앙지도원칙을 교회의 본질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구현해 온 것이 우리 영락교회의 전통이자 정체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에서, 그리고 민족복음화와

군선교, 학원선교 또 해외선교에서, 또한 주일학교와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교육, 많은 복지시설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영락교회가 표방하는 신앙지도원칙이 굳건히 자리 잡아 온 것입니다.

### 민주적 교회 운영의 전통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운영 방식이 장로교의 대의적 민주주의 제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개 교회별로 운영제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서는 교회를 철저히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많은 교인 중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 과정을 통해 교회 정책을 결정해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직분자는 교인들이 위임한 직책을 수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자신이 스스로 나서는 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로 세운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한경직 목사님께서서는 영락교회의 신앙지도원칙을 세우시고 또한 민주적 교회 운영 방식을 확립하셔서 영락교회를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목사님께서 세우신 외형적 영락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한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적 지침과 교회 운영 방식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미래에도 전통으로 이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남**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 전임 교역자 초청 홈커밍데이 열려



지난 11월 12일에는 80주년을 기념해 전임 교역자를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날 수요 1부 예배는 김순미 장로(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김지언 장로(행사준비 분과장)의 기도와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임영수 목사가 ‘은혜의 80주년’이란 제목으로, “해방 직후, 한 알의 씨앗이 오늘날 영락교회가 되었다.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걷자.”라고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김운성 목사의 환영사, 오창학 목사(신촌교회 원로)의 인사 말씀에 이어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참석한 배우자 포함 100여 명의 전임 목사들은 단체 사진 촬영 후, 만남카페에서 성도들과 뜻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50주년기념관 4층에서 오찬을 나눈 후에는 드림홀에



서 선교부 조두형 목사의 사회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은혜의 80년 영상을 시청할 때는 그 시절 추억에 잠기는 목사님들의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기념행사는 이철신 원로목사와 한진유 은퇴장로의 환영사, 내빈 소개, 축가로 이어졌다. ‘영락교회와 나’라는 순서에서는 김휘현 목사, 유상진 목사, 황광용 목사가 “80년의 역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영락교회는 목회로 가는 길에 목양의 고향이 되었다.”, “영락에서의 시간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목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오랜만에 영락을 찾아온 감회를 밝혔다. “멀리 있지만 기도로 연결하여 꼭 승리하도록 기도의 끈이 되겠다, 이 자리가 앞으로 100년을 향한 성숙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라는 소망도 전했다. 기념행사는 김운성 목사의 폐회 인사와 기도로 은혜롭게 마쳤다. **만남**

취재 김경옥 기자



#### 홈커밍참석자

박송기 구영철 권용평 김갑부 김 규 김동규 김범식 김상혁 김성철 김은섭 김정희 김진년 김철웅 김충섭 김해수 김휘현  
노대웅 노철규 류종상 문성욱 민철홍 박국배 박규성 박성근 박재학 박재현 박춘태 백성우 서성환 서정호 손영규 양기수  
엄상일 오을영 오정현 오창학 오철훈 우강학 우영수 유상진 유재경 유희정 윤두혁 윤장훈 윤현수 이광욱 이상천 이석우  
이선우 이수중 이응삼 이재팔 이정우 이종찬 이창조 이홍구 임신영 임영수 임정석 장병희 차동혁 채규웅 최승도 최창범  
한규영 한정원 한현수 함승수 허남기 현승학 황광용 Bill Majors (가나다순)

## 영락의 은혜를 품고 고척에서 피운 감사의 사역



노원교구 제3여전도회 첫 모임

### 영락과의 첫 만남

중학교 2학년, 짝꿍 집에 놀러 와 뛰어놀던 너른 마당이 영락교회였습니다. 친구 아버님께서 임영수 목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 물어봤어요.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니?”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 사춘기 시절의 저에겐 그게 큰 물음표였나 봅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뭘, 별거 아니야.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뿐이야.” 저희 대화를 사모님이 들으셨는지,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한 토막이 실려 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하기 며칠 전 이삿날, 한참 이삿짐을 내리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한 병원 심방이 있는데 올 수 있느냐고 합니다. 구겨진 양복을 걸쳐 입고 찾아간 병원에서 처음 뵈 구역장님이 권사님 성함을 알려주셨어요. 몇 번 되뇌고 들어가 기도하는데, 성함이 생각나지 않아요. 나쁜 기억력! 기도 중 입에서 튀어나온 성함이 틀렸어요. 구역장님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 ○○○, 두 번 알려주셔서 겨우 고쳐 기도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다

그랬던 중학생이 25년이 지나 담임목사님의 옛 사택 앞 목양관에 살게 된 겁니다. 친구 말대로 운이 좋아서 이기도 하고 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뛰어놀던 교회 마당에서 제 두 딸도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차동혁 목사  
고척교회 위임목사  
前 영락교회 부목사  
(2015년 1월~2022년 1월)

### 영락에서 배운 사랑, 간증으로 맺은 열매

그렇게 사람 이름도 기억 못 하는 부족한 저를 영락교회는 사랑 듬뿍 담아 훈련해 주었습니다. 이철신 목사님과 김운성 목사님, 너무도 훌륭한 두 분의 담임목사님께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고, 교구와 부서 식구들,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많은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두 분 목사님의 목회 모습을 떠올리며 흥내 내려고 노력합니다. 김운성 목사님, 항상 다소곳이 다리 모아 앉으시지요. 저도 앉을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먹고 살다 보니, 저같이 기억력 나쁜 사람 눈에도 말풍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서초교구 간증주일

식구들을 만날 때 이름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 말풍선이었습니다. 그 말풍선들이 생기기까지 구역장 권찰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교구 식구들 한 번 심방하면 언제 또 뵈 수 있을까 싶어 심방한 가정마다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면, 구역장님들이 다음 심방 가정들의 재촉 연락을 받으시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진땀 빼면서도 제가 불편해할까 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무엇보다 구역장 권찰님들이 어렵고 힘든 교구 식구들 돌보고 섬기는 모습들은 제가 지금도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의 말풍선 수를 확 늘려준 것은 간증주일입니다. 간증주일, 길게 늘어진 교구 식구들을 보며 화장실도 못 가고 꼭꼭 참느라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 올해 9월 두 주일을 정해 '교구심방의 날'이란 이름으로 고척교회 간증주일을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 사역의 훈련, 선교의 열정

부서 사역으로 상담부, 신앙아카데미, 예배부, 호산나 찬양대, 선교부 등, 하나하나가 저를 성장시키고 도전시키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부를 맡자마

자 시작한 코로나로 모든 사역이 멈추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영락의 저력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의 장례에 함께 위로할 수 있었고, 많은 분의 고난 속에서 회복의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은 '영락'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찡한 저의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자산 중 하나는, 영락에서의 첫 장례를 마친 후 쓰러지신 권사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의식 없던 권사님을 위해 어설픈 목사가, 차라리 제 수명을 떼어주시라 어리석은 기도를 했어요. 7년이 지나고, 남편 집사님의 지극한 돌봄과 기도 끝에 제가 영락을 떠나기 직전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신 권사님의 모습을 뵈게 해주셔서 눈물나게 기뻐했습니다.

### 배운 대로, 섬김으로

제가 배운 데가 영락이라, 고척에 와서도 배운 대로 합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새아기 축복기도도 하고, 자녀축복 특별기도회도 하고, 작년에는 간증주일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부도 시작했고, 내년에는 제 자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재수생을 위한 베드로부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것 배운 만큼 영락에 갇아드릴 수는 없지만, 배운 대로 겸손히 묵회하다가 흑여복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주님이 '이건 영락도 함께 누릴 열매다.'라고 말씀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남**



##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영락교회

먼저 영락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2:20)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  
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편지의 마지막 말씀은  
제가 영락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 어머니 이야기와 영락교회

영락교회와의 인연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로 올라갑니다. 평안북도 철산이 고향으로, 영락교회 많은 1세대 성도님들처럼 해방 이후 북한이 공산화될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1948년에 온 가족이 월남하셨습니다. 종로구 익선동 낡은 처소에 터전을 잡으신 뒤 영락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1949년 본당 석조전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할 때 어머니는 그 돌계단 주변에서 돌맹이를 주워 공기놀이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 전쟁 속 돌계단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

그러다 6·25 한국전쟁이 터졌지요. 피난을 못 가고 남아 있다가 폭격으로 부모를 잃게 되어, 어머니는 하루 아침에 전쟁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철없이 뛰놀던 영락교회의 돌계단이, 그때부터는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으니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락교회의 자락에서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종종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들인 제가 바로 그 동일한 돌계단을 오고 가며 밟으며 영락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 영락교회에서 시작된 목회의 기초

신대원 졸업 후 영락교회에서의 첫 전임전도사 2년의 사역과 유학 이후 다시 돌아와 섬기게 된 5년 10개월 동안의 부목사 사역은 제 목회 여정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마르다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하는 내내 후원받게 된 것은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영락교회에 너무나 많은 빛을 지고 살아온 셈이기에, 사역하는 동안 이철신 원



김응신 목사  
산성교회 위임목사  
前 영락교회 부목사  
(2014년 1월~2019년 10월)

로목사님과 김운성 담임목사님을 모시며, 성도님들과 함께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회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 산성교회에서 경험한 고난과 회복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19년 11월 부임한 산성교회에서 벌써 만 6년째 사역을 은혜 가운데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첫 부임 후 품었던 많은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에서 감당케 하실 사역에 대해 기도로 준비했던 수많은 계획이, 불과 부임 후 석 달 만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고, 그 무엇 하나도 준비된 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온 성도와 힘을 모아 영적 회복을 향한 다양한 걸음들을 오히려 새롭게 시도할 수 있었고, 매번 그 사역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 영락과 산성, 동일한 비전을 품은 공동체

또한 영락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마음에 품게 하였던 북한선교와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산성교회에서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72주년이 되는 산성교회는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던 1953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남산 후암동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태동이 영락교회와 사실상 겹을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7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북한선교에 대한



2017년 종교개혁지 순례여행

비전을 온 교회가 함께 선포하고, 송실대 기독교통일 지도자센터와의 활발한 연계 사역을 통해 ‘북한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내지사역, 구출사역, 동행사역의 세 축을 선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갱신과 공동체 성 회복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시작된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에도 성서강의로 꾸준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자양육훈련부를 통해 시작했던 소그룹사역,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강의하고 종교개혁지를 탐방했던 프로그램 등을 그대로 산성교회에서도 이어가면서, 현재 감당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통해 배우고 경험하며 준비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큰 틀 속에서, 영락교회도 산성교회도 여전히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서로 생각할 때마다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며...



사송영락교회

영락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회는 ‘기억·감사·헌신’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과거 80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현재의 사명을 재확인하며, 미래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8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80주년 기념사업은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을 깊이 새기며 교회의 역사와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추진했으며,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영적 각성의 과정이었습니다. 갈수록 약화되고 어려워져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한 더 폭넓은 사역과 깊이 있는 영성을 통해 민족복음화와 세계를 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념사업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김순성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 장로님, 각 분과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순미 장로  
서초교구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

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충성된 헌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납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귀한 열매가 되어 영락의 다음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늘 충만히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락교회의 무궁한 발전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사무엘상 7:12)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80주년을 마무리합니다. Soli Deo Gloria!

##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회 총괄 보고

### 1.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연혁

- 21.07.03 당회원 WorkShop에서 80주년 기념사업 발의
- 22.04.10 교회창립 80주년비전위원회 출범 예배
- 22.08.20 비전위원회 분과 보고회
- 22.09.05~06 정책당회, 비전위원회 분과별 WorkShop 및 추진 방안 보고
- 23.01.14 비전위원회 신년기도회
- 23.03.17 비전위원회 금요기도회-비전위원회 조직 발표
- 23.07.23~08.13 교회창립 80주년 특별헌금 접수 안내 부스 운영
- 23.09.04~05 정책당회, 2025년 이후 미래사역 지정

## 2.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회 조직

- 위 원 장 : 김순미 장로
- 부위원장 : 정천우 장로
- 총 무 : 김성현 장로
- 서 기 : 김종태 장로
- 회 계 : 이창선 장로

### • 분과조직

	분과명	분과장
확 정 사 역	영성	정경섭 장로
	교회 개척	심재수 장로
	행사 준비	김지언 장로
	코이노니아 공간	차남수 장로
	역사	김두형 장로
	미래 공간	김명권 장로
	환경직 기념	조용철 장로
미 래 추 진 사 역	디지털교회	서상현 장로
	삼일로 출입구 조성	홍영남 장로
	아가페 센터 건축	이용희 장로
	목양관 건축	김종태 장로
	디아코니아	김성현 장로
	총괄 행정 담당	차영균 장로
	총괄 재정 담당	정하진 장로

\*협력위원 : 김형진, 최현우, 이영진, 김용범 안수집사

## 3. 교회창립 80주년기념사업회 분과별 추진사업

### 1) 확정사역분과

#### (1) 영성

- 80주년기념사업회가 조직된 이후 기념사업회 모든 분과의 원활한 사역 진행을 위한 예배, 특별기도회, 매월 정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 80주년기념사업회 임원 및 모든 분과위원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자치단체들의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지원하고 있다.

#### (2) 교회개척

- 사송영락교회 개척은 80주년 기념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다.
- 사송은 신도시로서 교회개척의 최적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불교와 이단이 매우 흥한 곳이다.
- 15,000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초입에 자리한 매우 좋은 종교부지다.

#### (3) 행사 준비

- 세계성가합창제(미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교회 내 3개 찬양대가 협연) : 2025. 6. 1
- 80주년 기념음악회(교회 내 8개 찬양대 협연) : 2025. 9. 13
- 전임교역자 초청 홈커밍데이 : 2025. 11. 12  
임영수 목사와 부목사 71명, 사모 32명이 참석하여 성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4) 코이노니아 공간

##### ① 영락꿈터 (50주년기념관 7, 8층 키즈플레이존)

다음세대의 눈높이를 고려한 시설 배치

- 플레이그라운드 & 챌린지코스  
초등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 트램펄린 & 쿠션놀이터 & 볼풀슬라이드  
유아·유치원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놀 수 있는 공간

##### ② 50주년기념관 1층 만남카페 & 지하 1층 친교부/소강당, 선교관 제2식당 리모델링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의 연면적 810m<sup>2</sup>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일부를 확장하여 바리스타 서비스 공간과 젊은 세대를 위한 스탠딩 카페 공간과 북스토어를 확충했다.



50주년기념관 7층 키즈플레이존 영락꿈터



50주년기념관 1층 만남카페와 코이노니아 공간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친교부/소강당

지하 1층은 친교부 공간을 환경 개선하고 소그룹 미팅과 소극장을 작은 영화관, 퍼포먼스, 찬양대 연습 및 워십 연습의 다목적 공간으로 개선했고, 선교관 지하 2층의 제2식당은 리모델링으로 결혼 피로연 장소뿐만 아니라 소그룹 및 세미나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했다.

## (5) 역사

### ① 디지털역사관

디지털역사관의 규모는 오프라인 건물로 비교하면 길이 70m, 폭 45m, 높이 8m에 달하여 약 952평 10층 건물의 규모이다. 십자가 형태로 꾸며진 가상공간은 영락교회 성장 및 발전(A존), 영락교회와 한국 사회(B존), 영락교회와 기독교(C존), 영락교회 5대 본질(D존)로 구성했다.

### ② 영락교회 80년사

영락교회는 해방 직후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월남



디지털역사관

한 피난민이 세운 신앙공동체이다. 60년대와 70년대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오늘의 한국 교회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을 토대로 영락교회 80년사를 편찬하고 기술하고 있다.

## (6) 미래 공간

교회 주변 건물 매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소그룹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봉사관, 환경직목사기념관의 증개축을 통해 미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백병원 앞 중구 저동2가 72-9 외 2필지의 건물을 매입한 바 있으며 향후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 (7) 환경직 기념

### 환경직 캠프 운영

환경직 목사의 신앙 유산을 세세히 톺아보아으로써, 환경직 목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현시대의 맥락과 청소년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이를 다음세대에게 전수한다. 환경직 목사의 주요 사역인 '목회·교육·선교·봉사·애국'의 신학적 적용이 이루어진 주요 사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사회에서 해당 사업들의 진행과 사회적 영향들을 캠프 운영을 통해 체험한다. 대상은 영락교회와 사학미션네트워크와 연계한 기독교 학교로 15~20여 개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 (8) 디지털교회

### ① All-line 교회 인프라 구축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오가며 자유롭게 소그룹/교육/회의/모임 등이 일어나는 교회

### ② 디지털 콘텐츠 허브 구축

- 향후 방송실 및 흠어진 미디어 조직을 통합하여 미디어 센터로 확대 예정
- 예배, 행사, 제작 영상 등의 영상물 저장 공간을 확충하고자 기업형 NAS(Network Attached Storage)으로 구축하여 본당 및 각 부서 예배 후 바로 영상 보관(자동 인코딩 기능 추가), 색인 및 검색 기능으로 부서 간 공개 자료 조회, 어디에서도 접속 가능

### ③ 드림홀 미디어 환경 개선(미디어 소극장) : LED 스크린, 조명, 영상, 음향 등

- 예배 및 행사에 맞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중·고등부, 대학부, 청소년 및 3040세대, 장년층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장소 제공

## 2) 미래추진사역

### (1) 목양관 건축(목양관 사택 리뉴얼 공사)

- 외부 사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목양관 사택 28세대 리뉴얼 공사(화장실과 싱크대 등)가 2025년 7~8월에 시행되었다. 외부 사택을 대상으로 하는 목양관 건축은 그 시기와 장소 확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 (2) 삼일로 출입구 조성

- 영락교회의 인지도를 높이며 세상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더욱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된 출입구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직 캠프

### (3) 아가페 센터 건축

- 영락교회가 섬기는 사랑부 지체들의 지속적인 재활과 안정된 삶을 위한 시설인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나, '장애인 인턴시설지원법'으로 인한 장애인 입소 정원 단계적 감축·폐지, 2041년 내 모든 형태의 생활시설 폐지, 생활시설의 신규 설치·입소를 제한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고 장애인 인권 단체의 저항이 예상되기에 제도적 눈높이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 (4) 디아코니아

- 후원과 구제사역을 넘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 사역이 필요하기에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 과정의 목적으로 '디아코니아학교(가칭)'를 개설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섬김의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 5. 맺음말

2023년 7월, 8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성도님들의 특별 헌금으로 시작된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중 8개의 확정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락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추진사역도 비전 90년, 100년을 바라보며 영락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영락교회의 무궁한 부흥과 발전을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만남**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많은 사람은 한경직 목사가 박정희의 유신정부를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한경직 목사는 박정희와 같이 반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는 박정희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경직 목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공산주의를 막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8회에 걸쳐 연재된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시리즈'는 이번 호에 종료됩니다.

## 박정희 정부 반공 중시한 한경직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수호

### 5·16 혁명과 한경직 목사의 민간외교

419는 자유당 정부의 부정선거와 맞서 싸운 민주혁명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불순세력이 가담했고, 민주주의는 오히려 위태로워졌다.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염려했다. 이런 가운데서 박정희 소장은 5월 16일 장도영 장군(육군참모총장)을 앞세워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장도영은 신의주 출신 기독교인으로 한경직 목사를 존경했다. 영락교회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5·16을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1961년 6월 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은 영락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동시에 혁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박정희의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장도영 정부는 민간 차원의 외교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 사장 최두선, 이대총장 김활란, 영락교회 목사 한경직을

대표로 선정하여 6월 20일 미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했다. 이들은 미국에 가서 6월 28일에는 미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을 초청하고, 29일에는 뉴욕총영사관에서 저명한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군사혁명을 소개했다. 동시에 미국 각 도시를 순방하며 교포들에게도 홍보 활동을 했다.

그러나 7월 9일 장도영은 반혁명 사건에 연루되어 그를 따르던 신의주 출신 군인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당시 군사정권은 한경직 목사의 가택도 수사했으며, 한 목사도 귀국 후 한동안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6 군사정부에는 서북세력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경직과 영락교회는 박정희 정부가 반공정부라는 점에서는 지지하지만,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다.

###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과 한경직 목사

1961년 5·16 군사혁명을 거쳐 1963년 말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정희는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그는 많은 언론이 무책임하며 친공산주의적인 경향도 보인다고 보았다. 박정희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종교계를 포함한各界의 지도자들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한국친선사절단원들: 좌로부터 한경직, 최두선, 김활란, 정일권(당시 주미대사) [동아일보] 1961년 6월 23일

자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

당시 20여 교파와 150만 신자를 보유한 한국기독교 연합회는 언론인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위 연합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는 “한국기독교 교계는 심의회의 대표 파견을 거부한다.”라며, “언론인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언론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 1964. 8. 11). 한경직 목사는 당시 많은 재야인사와 함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특히 월남인이 많이 참여했는데, 장이욱, 함석헌, 노진설, 김홍일, 한경직, 강원용, 장준하 등이 대표적이다(경향신문 1964. 8. 11). 기독교를 비롯한 이 같은 반대에 직면해 박정희 정권은 언론법 시행을 중지했다. 이 법은 1980년에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부활했다.

### 박정희의 3선 개헌과 한경직 목사

1967년 5월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 압도적으로 재선



한경직 목사가 참여한 언론자유수호국민대회 기사 [조선일보] 1964년 9월 5일

되었다. 하지만 6월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는 달랐다. 당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을 위하여 국회의원 2/3가 되어야 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압도적인 승리는 어려웠기 때문에 공화당은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야당은 국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국가 원로들에게 난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구했다(조선일보 1967년 7월 18일). 당시 한경직 목사는 유창순, 강원용과 함께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67년 1월 28일). 한경직 목사는 여야의 대타협을 주장했다. “여야가 서로 타협을 모색하여 국회를 정상화해야지만 약에 단독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옳다고 볼 수 없다.”(동아일보, 1967년 9월 13일)

1971년 4월에는 박정희의 3선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당시 보수기독교는 박정희를 지지했다. 그러나 김재

준 등을 중심으로 민주, 재야 세력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만들어서 공명선거를 강조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는 이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26일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이 시점에서 “이번 선거가 어떤 형태의 부정도 없는 ~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민족중흥과 민주국가의 확립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971년 4월 26일). 한경직 목사가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기존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독자적인 행동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본다.

### 박정희의 유신과 한경직 목사의 입장

박정희는 3선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불안한 것이었다. 김대중 후보와 격차가 얼마 되지 않았다. 곧이어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결과가 더 좋지 못했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는 이번 선거를 한국민의 민주 의식이 성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서 여당에는 경제발전 못지않게 부의 균등한 분배를 주문했고, 야당에는 국가적인 이슈에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 1971년 5월 29일).

하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와 우리 민족의 정치 수준으로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박정희는 1972년 10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삼권분립을 거부했다. 한경직 목사는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계엄이 발포된 지 약 1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 1973년 말부터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강하



민주수호협의회 초청 간담회 [경향신문]  
1973년 12월 14일

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유신을 반대하는 목사들과 유신을 지지하는 목사들로 나뉘어 있었다. 전자에는 KNCC를 중심으로 김재준 목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후자에는 보수기독교의 김준곤(CCC대표), 김장환(침례교, 극동방송), 조용기(순복음교회)가 속했다. 한경직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12월 10일 오후 김종필 총리는 공관으로 교계 지도자(예장통합: 한경직, 배명준, 김윤식, 기장: 강원용, 김관석, 이영민, 감리교: 김창희, 김주병, 윤창덕, 성공회: 이천환)를 초청하여 시국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석 목사는 현재 학생들의 행동 가운데는 일부 과격한 점도 있으나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 교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조건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 1973년 12월 11일).

이어서 11일 오전에는 공화당 주최로 기독교계 지도자를 초청하여 현 시국에 대한 간담회를 했다. 이효상당 의장서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는 배명준 KNCC회장, 유호준 예장 통합총회장, 한경직과 강신명 목사 등 14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기장의 김재준, 조항록, 강원용, 성공회의 이천환, 감리교의 박대선, 윤창덕은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신체제를 완화하고, 정보정치를 지양하며, 학원과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정당의 권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한경직 목사는 “과거 목사들의 설교에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통일의 노력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동아일보 12월 12일).

이렇게 정부가 기독교계를 설득하는 가운데 반유신 세력도 힘을 합하기 시작했다. 재야 세력이 만든 민주수호국민협의회는 12월 13일 오후 서울 YWCA에서 다른 재야인사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했다. 여기에는 민수협에서 함석헌, 김재준, 천관우, 계훈제가 참여했고, 초청된 인사로는 김홍일, 윤보선, 백락준, 유진오, 이병린, 김수환, 이정규, 이희승, 이인, 한경직, 김관석이었다. 이들은 토론 끝에 대통령에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삼권분립 체제 재확립, 3)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 등을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경향신문 1973년 12월 14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해서 1973년 12월 31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된 건의문을 보냈다(경향신문 1974년 1월 1일).

이런 상황에서 재야인사들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것은 재야인사 30명이 주축이 되어서 개헌청원 백만인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장준하는 이 서명운동이 10일 전에 시작된 서명운동을 보다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전에 서명했던 15명의 인사 가운데 윤보선과 한경직은 제외되었는데, 윤보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것은 동양의 예법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경직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서명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후에 한경직 목사는 장준하가 와서 서명을 요청했는데, 장준하의 아버지와 자신은 평북에서 함께 목회한 인연으로 서로 잘 알고 있으나, 만일 자신이 서명하게 되면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엑스플로 74)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경직 목사는 목적이 분명하면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경직 목사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세력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한경직 목사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만남**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 캠퍼스에, 오늘 또 하나의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부스를 세우고, 노상 위에서 친구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부스'라는 이름의 이 작은 순종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12월호에서는 그 첫 물결이 시작된 연세대학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연세대 캠퍼스 한복판에 전도부스 '우리들의 전부'를 아시나요?



7월 28일, 35도의 뜨거운 날씨에 전도하러 온 학생들(오른쪽이 필자)

### 예수님을 전하는 연세대의 '전부'사역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에서 은혜 가운데 시작된 전도 사역인 '전도부스'를 소개합니다. 전도부스는 현재 '우리들의 전부'라는 공식 명칭으로 연세대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부'는 전도부스의 줄임말이자, 동시에 우리들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신과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전도부스는 로마서 10장 14~15절 말씀을 바탕으로, 연세대 기독교학생연합회, 교목실, 신앙지도교수회가 마음을 함께 모아 캠퍼스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고 시작한 사역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캠퍼스 한가운데에 부스를 차리고, 음식과 재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소통의 접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하나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찬 회장  
연세대학교 기독교학생연합회  
연세대학교 의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 1학기

### 퀴즈, 팔찌, 북마크! 청년 맞춤형 전도 전략

전도부스는 2025년 5월 15일에 연세대에서 진행된 기독교 문화축제인 '화목축제'를 계기로 세워진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퀴즈 전도를 개발하여, 총 1,000여 명의 학우를 만나 164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88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전도부스를 정기 사역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도부스는 연세대 역사를 활용한 '퀴즈 전도'를 비롯해, 스몰토크를 하며 '북마크 전도', '복음 팔찌 전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재정 없이 믿음과 기도로 준비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는 의자, 테이블 등 모든 필요한 물품을 채워 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물품을 공급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전부'를 통해 지금까지 약 60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부스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고, 1,500여 명의 학생이 부스에 참여하며 대략 200명이 복음을 듣고, 50명의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목님과 신앙지도교수님들도 함께



북마크 만들기과 비즈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교류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연세대학교의 역사를 재밋게 담은 퀴즈로 세 명의 학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나이와 직업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소명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전도에 관해 부담을 가지신 많은 분이 전도부스를 통해 함께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복음의 불씨, 작은 불꽃으로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선교의 역사 140년과 더불어 연세대학교도 창립 14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연세대를 세우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불씨를 다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선교의 불이 연세대를 넘어 다른 캠퍼스와 청년들에게 퍼져나가, 한국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는 은혜의 날을 기대합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부스를 통해 많은 전도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만남**

### 인터뷰

#### 양인철 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교목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세우신 연세대학교 안에 전도부스가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오늘날까지 열매 맺은 것처럼,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도 열정은 다시금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 뉴스와 신앙, 나눔과 감사의 자리에서 만난 한 성도의 여정 새벽을 여는 앵커, 애정으로 세상을 보다

편집장  
인터뷰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류주현 앵커

새벽 4시, 세상보다 먼저 깨어 하루를 여는 사람이 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류주현 앵커는 치열한 뉴스 현장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그는 뉴스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 믿으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한다. 홍보대사로서의 섬김, 음악 봉사, 그리고 영락에서 4대째 이어온 신앙의 뿌리까지, 그의 여정은 성실함과 믿음이 쌓아 올린 조용한 고백이었다.

만남 사람: 김성문 편집장/안수집사  
사진: 원종석 집사



### 새벽 4시, 하루를 여는 앵커의 리듬

새벽 4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류주현 앵커에게 새벽은 긴장의 연속이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쏟아질 수 있기에 마음 놓을 틈이 없다.

YTN 시절부터 아침·점심·저녁·새벽을 가리지 않고 뉴스를 맡아온 그는 “잠은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라며 웃어 보였다. 생방송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체력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는다. “체력이 집중력이고, 생방송은 일종의 기싸움이지요.”

그래서 그는 달리기를 통해 리듬을 유지한다. 빛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쌓인 성실함이 매일 아침 그의 목소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 뉴스를 대하는 애정 어린 시선

그에게 앵커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묻자, 객관성과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말하면서도 뉴스는 결국 ‘우리 이웃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신앙이 가르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었다. 그는 매 순간 ‘이건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전세 사기처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건을 대할 때면, 그 고통을 실제 이웃의 일처럼 생각하려 한다. 기자로서도 ‘사실 보도’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기계적으로 읽는 뉴스는 마음에 남지 않기에, 작은 문장 하나에도 진심이 스며야 한다고 믿는다. 그의 애정 어린 눈길은 시청자가 느끼는 신뢰의 바탕이 되었다.

### 스튜디오를 넘어, 영락 80주년 무대 위에서

지난 9월, 영락교회 창립8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사회자로 무대에 섰다. 천여 명의 합창단과 관객석에 가득찬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 훑어보는 순간, 제한된 인원 앞에서 진행하는 뉴스 스튜디오 조명과는 전혀 다른 울



영락교회 창립80주년 기념음악회

림이 가슴을 찔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뉴스를 맡겨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80주년 그 자리를 위해 먼저 훈련시키신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직업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가 별개가 아니라 한 길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다. 80주년이라는 교회의 특별한 시간에 사회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 베를린 장벽 뉴스 앞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

초등학교 시절, 베를린 장벽 붕괴 뉴스를 보던 한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앵커 너무 멋있다!”라는 울림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음악을 좋아해 바이올린을 석사까지 전공했지만, 중요한 현장을 전하는 뉴스의 세계는 늘 그를 끌어당겼다. 여러 방송사 시험을 준비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집에서 보기만 하는 게 싫다.”라고 자기소개서마다 적었다. 어린 시절 TV 앞에서 느꼈던 막연한 동경은, 카네기홀에 갔을 때 들은 CNN 앵커이자 첼리스트 ‘폴라 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구체적인 길로 이어졌다. ‘저 사람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은 마음 깊은 곳의 소망을 선명하게 했다. 귀국 후 망설임 없이 방송국 입사를 준비했다.

### 벤엘 기도실에서 시작된 응답

음악 유학 후 2007년 한국에 돌아온 뒤 YTN에 입사하기까지의 5년은 가장 길고 고된 시간이었다. 방송사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지며 긴 어둠을 지나야 했다. 그때 하나님께 “올림픽 뉴스를 하고 싶어요.”라고 기도하곤



2024년 5월 12일 예배 때 구순 넘은 고모할머니(좌측)와 바이올린 연주하는 류주현 앵커(우측) 포함 4대 가족 8명의 찬양

했다. 그러나 2012년 MBC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듯했다. 갈 곳이 없어 찾은 영락교회 ‘벤엘’ 기도실에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라는 짧은 기도만 겨우 드릴 수 있었다. 그 무렵 한국경제TV의 짧은 국제뉴스 코너를 매주 하나 맡고 있었지만, 삶의 진로는 여전히 흐릿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구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일 정시에 뉴스하는 곳’. 정확히 3개월 후 YTN에 합격했고, 그곳은 24시간 정시 뉴스 체제였다. 입사 한 달 반 뒤 런던올림픽이 시작되며 박태환 선수 중계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5개월 전 MBC 면접에서 가상으로 면접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제 작은 기도까지 들으셨어요.”라고 고백하며 감사했다.

### 나눔의 자리에서 더 크게 받는 은혜

류주현 앵커의 생명나눔 섬김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문인성 원장을 인터뷰한 인연에서 시작됐다. 이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장기기증 유가족 모임 행사, 합창, 위로 연주 등 활동에 동참해 왔다.

병원에서의 연주는 KODA와 별개로,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와 함께 환자들을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로 이어졌다. 바쁜 뉴스 현장 속에서도 1년에 두세 번은 꼭 시간을 내어 이 사역의 자리에 선다.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는 봉사가 ‘주는 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시간이라 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필요한 곳에서 저를 또 부르시겠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맡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며 걷는 신앙인의 결이 깊게 배어 있었다.

### 카메라 앞에 서기 전, 한 줄의 기도

뉴스에 들어가기 전 꼭 붙드는 것은 짧은 기도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치열한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흔들릴수록 붙드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자.”

“영락의 모든 성도님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TV조선 류주현 앵커와 『만남』 김성문 편집장



뉴스는 수십 명이 협업해야 완성되는 자리이기에, 관계가 무너지면 일도 무너진다. 어떤 이에게 마음이 상할 때면,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나를 짊어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되짚어 본다고 했다.

#### 4대째 영락을 섬겨온 가족의 이야기

류주현 앵커의 가정은 지금 4대가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다. 고모할머니 세대부터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영락 성도이며, 그는 모태신앙으로서 소년부에서 합주부 활동을 하며 자연스레 영락과 함께했다.

가족들은 찬양대, 음악부, 교육부 등 각 부서에서 찬양과 봉사로 섬기고 있고, 이번 80주년 기념음악회에도 여러 가족이 함께 무대에 섰다. 그는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부담스럽고, 오히려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에 더 자주 부끄러워요.”라고 솔직히 말하면서, 40대가 된 지금에서야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느낀다고 고백했다.

작년 5월 가족주일 예배 때 4대 가족 여덟 명이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한 순간은 특히 잊을 수 없는 은혜였다. 구순이 넘은 고모할머니까지 한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그날을 떠올리면서 “이런 가정의 신앙 전통은 요즘 보기 드물긴 해요.”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 영락 공동체에 전하는 축복 인사

류주현 앵커는 축복의 말을 부탁하자, 어린 시절 『만남』을 가끔 읽었는데, “영락교회 교인이어서 매우 기쁘다.”라는 어떤 성도의 글에 공감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는 당사자가 되어 “영락 가족 안에서 자라온 것이 큰 축복이죠.”라고 고백했다.

그는 80년 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신앙의 전통을 지켜 온 영락교회에 깊은 존경을 전하며, 사회적 시선이 교회를 향해 차가울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느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락 성도들에게 조용히 축복을 전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용한 이 한마디 축복과 고백을 남기며, 인터뷰는 따뜻한 울림 속에 마무리되었다. **만남**



## 고통 중에 함께하시는 주님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결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성장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 사역의 시작과 교만의 시련

저는 3대째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 유아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음반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어린이 캐릭터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뽀로로와 친구들> 뮤지컬과 체험전이었고, 이후 <토마스와 친구들> 체험전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제작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유명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IP를 활용해 어린이 뮤지컬, 인형극, 키즈카페, 체험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키즈 시장의 한 영역을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이 거듭되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



을 앞세우는 교만에 빠졌고, 결국 사기를 크게 당하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회개와 회복, 하나님이 여신 길

절망 속에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영락교회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후 '만남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약했던 한 캐릭터 작가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새롭게 테마파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탓에 아무런 자본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도권 최대 워터파크인 '웅진플레이도시'를 찾아가 기획안을 설명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약 4,000평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이선일 집사  
고양·파주교구  
영락꿈터 설계



않고 설득한 끝에 어렵게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후 수십억 원의 시설비와 보증금 부담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인근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과 업체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오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직원들조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영락꿈터,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

이후 영락교회 사회봉사부를 통해 아이들을 무료로 초청하여 체험하게 하는 사역을 구상하던 중, 박홍준 장로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장로님은 50주년기념관 7층에서 페트병으로 축구하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웃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키즈카페, 체험전, 테마파크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영락교회 80주년 기념사업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영락꿈터’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 회사의 직원과 함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가장 안전하고 재미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결실

영락꿈터에서 아이들이 웃고, 즐기며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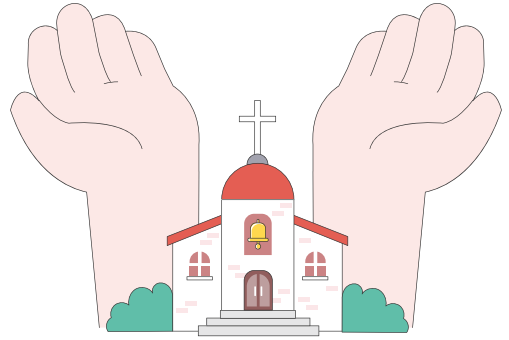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6)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락꿈터가 영락교회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첫 열매가 되었듯,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훗날 영락교회 100주년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정민’ 찬양 사역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어 찬양으로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락꿈터를 통해 시작된 다음세대사역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다



### 외로움의 시대, 다시 주목받는 소그룹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발간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내년도 목회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예측대로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롭게도 소그룹사역은 어느 책에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사역 중 소그룹이 강조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지만, 영혼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많은 사람과 예배당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은 빈곤합니다. 영적 성장의 발걸음은 더디고,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공동의 목적

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있고, 교회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신앙의 심장박동은 느려졌습니다. 건물은 화려해졌고, 사역 프로그램은 많아졌지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서와 모임은 늘어났지만,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사역은 이 문제의 식에서 시작합니다.

### 이름이 불리는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건강함은 한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빚어낸 한 영혼의 기쁨과 눈물이, 다른 영혼에도 기쁨과 눈물이 되는가? 한 사람의 삶 속 고민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짊어지는 짐이 되는가? 바로 여기서 교회의 건강함이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 소그룹전담부에서는 영락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전담부는 7~8월 동안 소그룹 리더십 훈련을 통해 영락교회를 섬길 소그룹 리더들을 세웠고, 현재 약 200명의 소그룹원이 모여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매주



김승겸 전도사  
서대문·은평교구  
소그룹전담부



금요기도회 전에 모여 교역자로부터 사전 리더 교육을 받은 후, 주일마다 각 소그룹으로 파송되어 소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름으로 불립니다. 처음 온 사람도 오래전부터 모인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이 특정 날짜에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왜 안 보이셨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 깊이 있는 만남, 다시 뛰는 신앙

영락교회 소그룹들을 보면, 어느 그룹이 특별히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모임을 통해, 영락교회 소그룹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깊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하

는 것보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앉은 수천 명의 성도가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고, 영혼의 돌봄을 받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의 기쁨과 눈물이, 다른 영혼에도 기쁨과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이 자기의 이름이 불리는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큰 사랑이 있는 곳,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영혼이 영혼과 만나는 곳에서 신앙의 심장이 다시 한 번 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 “나는 믿습니다!”

### 암기가 아닌 진심의 고백

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신앙의 기초를 양육하는 제자훈련인 ‘그루터기’는 사도신경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종실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크레도’ 곧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심장을 드린다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 하나님의 자녀 고백, 온전한 회개的时间

그루터기 캠프에서의 예배와 예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주셨는데, 저는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고등부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사도신경을 읽으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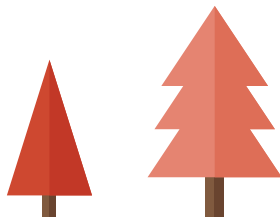
한 예식은 저의 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 둘째 날에는 파주 송악기도로 이동해 예배드렸습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상태로 이철신 원로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그루터기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니, 힘든 순간도 기쁜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그루터기를 위해 애써주신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등부에서의 마지막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아쉽지만, 고등부에서도 신앙이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단비  
중등부 3학년



## ‘의심에서 믿음으로’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에 꾸준히 다니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기독교가 비이성적이고 배타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종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신앙을 내려놓기 전에 목사님께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논리로 이겨보려 했지만, 오히려 그 대화가 제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던 저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제자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첫 강의에서는 ‘배타적인 기독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악한 하나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사랑이 죄일까?’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쉽게 다루지 않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수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Belief’와 ‘Faith’의 차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반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세대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선 ‘Faith’로 자라가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고, 내게만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 속에 제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터프 토픽스(Tough Topics)’가 교회 안에서 자주 다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김희수  
고등부 1학년



축복 사랑 나눔 축제(11.15.)

##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사랑 함께 나누는 기쁨

###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도

지난 11월 16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참석한 초청자(전도 대상자)에게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라고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동창(권사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어 “영락교회는 처음 방문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40년 전, 영락교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왔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영락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김상학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전도부 기획팀장

### 전도를 도와드립니다... 총동원 전도 캠페인

전도부에서는 4월부터 매 주일 봉사관 1층과 50주년기념관 1층에서 “전도를 도와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전4). 전도부스에서는 전도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전도 부담을 덜기 위해 전도 대상자와의 1:1 매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교회의 비전인 복음 전파와 공동체의 연합이 더욱 깊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도 특별 금요기도회, 작정자 모임 기도회

첫 번째 금요기도회(10월 31일)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성전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요기도회에서는 김여호수아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 작성자 모임 기도회(11.9.)



3 총동원 전도주일(11.16.)



4 전도부스 운영(좌측부터 전도부 강신웅 안수집사, 김무섭 장로, 필자인 김상학 안수집사)

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때 역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회에서는 강승훈 목사님께서 '못 건게 된 베드로'라는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11월 9일(주일) 오후 1시에는 보아스빌딩 2층에서 전도 작성자 모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사진2). 전도 작성자와 전도부 임원이 참석하여 강승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로 전도의 열정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토)에는 전도 대상자 초청 잔치인 '축복 사랑·나눔 축제'가 열렸습니다(사진1). 오후 2시 교회 투어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 드림홀에서 열린 찬양과 함께 김운성 담임목사님의 영상 환영사, 그리고 강승훈 목사님의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후 전도부 부장 김무섭 장로는 참석자와 초청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어진 새가족부 부장 김호섭 장로는 새가족 정착을 위한 안내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전도 작성자와 초청자들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축하공연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도의 사명을 마음으로 담아가는 시간

총동원 전도주일인 11월 16일(사진3)에는 1~5부 예배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마음으로 담아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편 126:5) **만남**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선교사역 중 문화사역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사역자가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교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잊고 자신의 역량이나 성도들의 인정에 몰두하기 쉬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 사역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화사역을 수행하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 수행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를 보다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성도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문화사역자의 주된 임무다 보니, 무대 표현 하나하나에 주관적인 의견과 자신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연의 선교적 사명보다는 사역자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문화사역자가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대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저 문화사역팀으로서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랑으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김준겸 집사  
고양·파주교구  
선교부 문화사역팀장



### <구레네 시몬> 속에 담긴 질문

특별히 이번 2025 선교대회 뮤지컬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고 공연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득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일까? 성공적인 공연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저는 지금까지 문화사역 공연을 준비하며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 사역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제가 과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쩌면 제 안에는 제 모습이 비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물

하지만 이번 뮤지컬 <구레네 시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 공연을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하실 말씀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부터 시작하여,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공연의 완성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연사역을 준비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모든 과정 중에, 저를 비롯한 우리 각각의 지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먼저임을 알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역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만남**

## 현재 나의 모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 영락교회로부터 온 초대

농촌 들녘 막바지 추수가 한창인 농번기. 영락교회에서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림잡아 이때쯤 단풍이 절정일것다 싶어 아내에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었다. 교회 재정으로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정 생활비, 자녀 교육비 그리고 교회 운영비까지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던 터라, 고생하며 수고하는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였다. 같이 가기를 수락하는 아내의 기쁜 표정에 감사했다.

수련회 당일 아침, 교회 앞마당에 준비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도착한 설악산 계곡에 동글동글한 바윗돌이 즐비하게 쌓여 있는 것을 어린이처럼 신기한 듯 쳐다보는 아내를 보며, 결혼 이후 여태껏 이런 곳으로 함께 여행하지 못



김동천 목사  
독정교회  
총회농어촌목회협의회 전 회장  
총회농어촌선교부 전문위원



했던 것이 못내 미안했고, 아내가 더욱 고맙게 여겨졌다.

### 은혜로 물든 강단과 찬양

개강예배 때 김운성 목사님의 "영락교회 옆 천막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처음 목회지를 부산 끝자락 영도에서 여시고 다시 이곳 영락으로 임지를 옮기신 것은 주님의 손길이며 은혜였다."라는 간증 같은 설교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고, '한경직 목사와 농어촌 선교' 특강을 통해 한경직 목사님의 '가난한 자를 위해 봉사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가르침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식사마다 정결한 식당에서 준비된 식탁과 메뉴, 행사 기간 내내 제1여전도회 회원들의 섬김이 우리에게 풍성한 육체의 포만감을 채워 주었다면, 영혼의 풍족함은 피곤함이 밀려오는 초저녁에 채워졌다. 단언컨대 저녁 식사 이후에 준비된 두 번의 콘서트는 저마다 드러내지 못할 상처를 간직한 채 이곳까지 찾아온 모두의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신앙을 담담히 고백하며 찬양한 '최민희' 찬양사역자, 피아노-클라리넷-첼로 그리고 테너의 음성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자신을 하찮은 철물점 쇠파이프에 비유하며





제31회 농어촌 목회자 수련회는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다가, 2025년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주최, 선교부 주관으로 다시 개최되었다.

옆구리에 뚫린 여섯개의 구멍이 자신 안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임에도 “내 인생을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긴 호흡과 운치법에 따라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다.”라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눈가와 마음을 어느새 촉촉하게 적셔 놓고 있었다.

### 상처 입은 목회자의 고백

사실 필자는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는 현재에도 담임 목회자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들(지난 4년 동안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감당하며 쌓인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힘껏 돌봄과 사랑을 쏟았는데 뿌리치듯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차가운 쇠파이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과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여건, 낮아진 자존감 등으로 힘들어하며 농어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부르셨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사랑과 헌신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락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라 확신한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읽은 아내의 메모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현재 나의 모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만남**

# 첫 사역의 눈물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 인도하심의 은혜

##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영락교회 80주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달려 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어느덧 1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교구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동료 목회자님들께 배우고 있으며,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영락교회에서의 시간 동안 목회 경험과 영성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내년에도 영락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산 전도사  
인천교구  
예배위원회(기도)



## 죽음의 현장에서 마주한 은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천교구는 올해 연초에만 20건이 넘는 장례가 났습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상례부 권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연초에 장례가 많이 난 적이 없었다고 하실 만큼 초상이 많았습니다.

교구에 장례가 나면 모든 사역이 뒤로 밀리고 장례에 집중해야 하므로 교구사역에 적응도 못 한 채 장례 사역을 먼저 감당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 입관, 발인, 장례의 모든 과정이 낯설기도 하고, 연달아 계속해서 장례가 나는 만큼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례 과정을 목회자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큰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장례식장에서 선포되는 복음,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방향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정은 신앙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중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라온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각 사람을 만나주실 때, 나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지나온 짧은 삶의 여정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자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미션스쿨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신앙에 반항하거나 튕겨 나가기 마련인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감에 어려운 감정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잘나거나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세밀한 방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남**



## 무너진 자리에서 감사로

10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두 시간씩 3주 동안, 영락교회 상담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5년 아버지학교-파더와이즈’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더 이해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청년부에 계시던 김철웅 목사님께서 젊은 이예배 때 설교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모로 간절했던 시기여서일까, 마음에 와 닿아서 깊이 스며든 덕분에 이따금 되새기게 되네요. “자극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파더와이즈를 통해 듣고, 나누고, 배우고, 느낀 지혜가 제 안에서도 살아있다는 간증을 『만남』에 기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들 속에서 배우는 사랑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교육이 만들어내고 선호하는 성향 중 하나가 ‘ISTJ’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태생



적으로 극도의 ISTJ(책임감 강한 관리자 유형)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반대 성향인 ENFP(자유로운 활동가 유형) 기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믿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30여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온 ISTJ와 ENFP가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니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가정은 가부장적이며 리더십 있는 무뚝뚝한 아버지를, 배려 깊고 헌신적인 현모양처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부부는 애매하게 반대가 되어 별생각 없이 던진 아내의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게 날아와 상처가 됩니다. 그 말에 상처 입은 짐승은 멈출 줄 모르는 전차가 되어 전쟁이 터지곤 했습니다.



계정림 집사  
강남교구  
IT미디어부 회계

### 깨달음, 그리고 회복의 시작

김철웅 목사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에서는 “교회가 불편하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기성세대는 참고





남아있지만, 신세대는 주저함 없이 떠난다.”라고 하시며, “교회도 바뀌어야 하지만 새로운 세대도 인식과 인재를 바꾸야 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추석 연휴에 있었던 부부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아내는 짐 싸 들고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불편한 교회(집)를 편하게 바꾸는 건 스스로 하기 나름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기성세대였나 봅니다.

TV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는 평소 즐겨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 윤유선 씨 남편인 이성호(전직 판사) 변호사가 조정장으로 출연했는데, ‘나는 옳았고, 사유가 있어서 화를 냈으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사과가 없다면 같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제 마음을 단번에 깨뜨리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벌써 6~7년을 한 배를 타고 떠나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나 더는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배를 반으로 쪼개서 각자 가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쪼개진 배에서 떨어진 그 자리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문제 해결 외에는 이혼밖에 없다.’라고 했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긴 다툼에서, 가장 큰 상처를 고스란히 받는 제 아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뉘우쳤습니다. 과정이 어떠했든, 사유가 무엇이었던 결국 부모의 자기중

심적 생각과 행동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상처로 전해졌습니다. 제 아들에게 저는 책임감과 감사, 사랑이 없는 그저 ‘아저씨’ 같은 존재로 비쳤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슬프고 후회했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뉘우침과 함께 아내와 아들에게 사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감사로 다시 세워진 가정

이 일 후에 접하게 된 ‘파더와이즈’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날개가 되어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시시비비만 가리고, 귀찮 사유만 따지던 고집불통 저 자신에게, 그리고 영락교회 곳곳에서 아내와의 다툼으로 멀어지고, 본의 아니게 자녀와의 골이 깊어진 많은 아버지께 감히 ‘파더와이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디모데전서 4:4)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에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영락교회에 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2025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 북적북적

## 독서행사 공모전 경과보고 및 심사평



476명의 성찰... AI부터 회화까지

‘빛으로 이끈 발자취,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을 주제로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2025년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은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사)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이 주관했습니다. ‘빛으로 이끈 발자취, 한국 기독교 선교 14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884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 14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개신교의 첫 마음과 복음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중학생부터 3040세대까지 총 476명이 참여했으며, 독서감상문·주제에세이·회화(만화)·영상 등 네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미션스쿨과 기독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예년보다 폭넓은 호응을 얻었고, 10인의 심사위원이 주제 이해도·창의성·예술성·진정성을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경천애인상 3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4명, 장려상 22명 등 총 45명이 수상했습니다. 출품작들은 한국 선교 140년의 여정 속에서 ‘잃어버린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서감상문 부문에서는 중등부 김시울(글로벌선진음성) 학생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비유하며 경천애인상을 받았고, 보성여중 최아

인 학생은 ‘이질적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 언더우드를 해석해 호평받았습니다. 대광고 김윤식 학생은 서우드홀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공공보건의 연계’를 제시해 주목받았습니다.

영상·회화 부문에서는 다음세대의 창의력이 돋보였습니다. 영락교회 고등부 장승규 학생은 AI 기술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교회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표현했고, 글로벌선진 문경캠퍼스의 이래운·문하은 학생은 일출과 파도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담아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독서 행사를 넘어,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를 통해 신앙의 뿌리를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다음세대의 신앙적 성숙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미션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을 통해 한국 교회의 첫 마음을 회복하고, 다음세대가 ‘빛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도록 지속해서 협력하겠습니다.

	주제에세이	독서감상문	회화/만화	영상
경천애인상	최아인(보성여중 3학년)	김사율 (글로벌선진 음성 9학년)		장승규 (영락교회 고등부 1학년)
최우수상	허윤성(글로벌선진 음성 10학년) 김윤식(대광고 2학년)	정혜빈(중앙기독중 2학년) 정소망(글로벌선진 문경 11학년) 안세진(영락교회 3040)	이래운, 문하은 (글로벌선진 문경 8학년)	
우수상	조성민, 조수아 (글로벌선진 문경 9학년) 이윤아(보성여중 3학년) 이준표(전주신흥고 2학년) 허준영(영락교회 3040)	김혜인(영락교회 중등부 3학년) 박하은(중앙기독중 1학년) 최현서(글로벌선진 문경 11학년) 송하율(전주신흥고 2학년) 고유미(보성여중 교사) 임준태(영락교회 3040)	보린달(보성여중 1학년) 이시형(중앙예담 12학년)	안소율, 정혜원, 조혜준 (보성여중 1학년) 이혜림, 한지민(보성여고 1학년)
장려상	박하영(보성여중 2학년) 최예율(보성여중 1학년) 김소휘(대광고 2학년) 송예진(영락고 3학년) 한경호(영락교회 3040) 박미옥(새음학교 교사) 김승태(영락교회 청년부)	임유은(글로벌선진 음성 9학년) 김효정(용북중 3학년) 이아현(일신여중 1학년) 박주출(글로벌선진 세종 12학년) 박예준(글로벌선진 문경 11학년) 신예철(글로벌선진 세종 11학년) 이기훈(보성여고 교육부)	정예원(글로벌선진 음성 9학년) 정지은(보성여중 1학년) 김아람(글로벌선진 음성 9학년) 박시유(일신여중 3학년) 김혜진(영락교회 3040)	황예준(백영고 2학년) 김다현, 김애주, 김지안 (보성여고 1학년) 이지선(영락교회 3040)



## 대한민국의 기반, 복음의 선조들

장승규 \_ 영락교회 고등부 1학년



<복적복적> 경천애인상 수상작  
영상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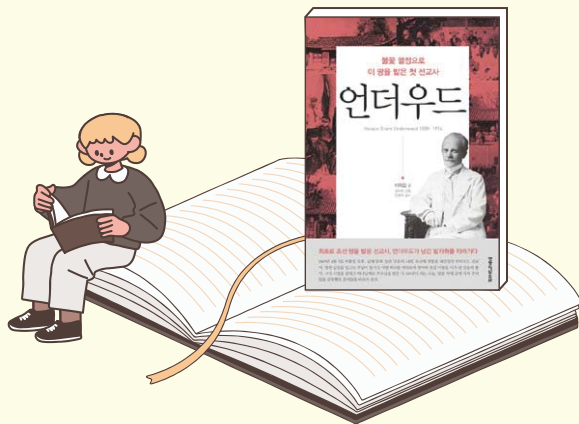
영상 중 한 장면



## 너를 위한 건데 왜 네가 몰라

### 1. 서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봤을 때 완전한 이방 나라이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달랐다. 사도들이 사역하여 각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후대까지 전해져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렸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생각해 보니 이러한 말씀이 생각났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에베소서 2:12~13)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 사람이 복



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지만, 방어적이었던 조선의 특성상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점점 개방되어 전도가 시작되었다.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다. 그는 남은 모든 인생을 한국 복음화를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람이다. 오늘 이 독서감상문을 통해 그의 인생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알아보자.

### 2. 포장 중인 선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 그것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 『언더우드』라는 책을 읽고 나서, 한국 복음의 시작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 전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의 어린 삶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한 선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가정은 다정했고, 부모님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더우드와 그의 형제들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김시율

글로벌선진학교 음성캠퍼스 9학년



말씀하셨다.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모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인생은 평안해 보였다. 어린 나이에 뉴욕대학교 입시생이 되었지만, 형제들과 아버지가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도의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전도하기 위해 언더우드라는 인도로 선교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끄셨다.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했다. 학교에 계신 교목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교하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중국에 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는 중국어를 모른다. 이때 만약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이다.

선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도 있다. 가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하심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고, 언더우드는 그 부르심에 응한 선교사이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준비시키셨고, 우리나라로 보내셨다.

### 3. 배달 중인 선물

우리는 택배를 시키면 설렘과 기대가 공존한다. 그 택배가 언제 올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언더우드가 선교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공존하셨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선교사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있어서 언더우드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필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는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알렌 선교사를 도와 알렌 선교사가 세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실히 약제사로서 일을 맡았다. 우리는 택배를 시켰을 때 가끔 다른 주소로 배달된다. 물건을 시킨 사람이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물건을 시킨 사람은 하나님이다. 결코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일까? 기사의 잘못된 것이다. 언더우드는 의술로 사역하다가, 의술이 전도사역보다 먼저 될 뻔했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전도를 선택하고 제중원에서 일하다가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에 임하기 시작한다. 택배가 잘 도착한 것이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 4. 선물 상자 안에

선물을 받았을 때의 참된 기쁨은 선물을 확인함으로써 느껴진다. 그 선물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인지 아니면 그 선물이 나에게 필요한 선물인지 선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람의 기대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언더우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온 선물 상자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금, 은, 보석, 돈,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담겨 있다.

첫 번째로 들어있는 선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

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 첫 번째 선물로 사랑이 나왔다면 어떻게 그는 사랑을 전했고,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주었을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제중원이라는 곳에서 일했다. 그러다가 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당시 조선 시대에 고아를 돌보는 시설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주관하고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통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세상의 가치에 혼란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언더우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두 번째로 언더우드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선물은 말씀이다. 언더우드는 조선 선교를 와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국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에 들어오면서 한국말을 익히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에도 그의 노력은 평생 이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말씀만을 전달한 것이 아닌, 더 나아가 그의 후손과 자신이 영한사전을 만들어 편찬하는 일로 언어적 장벽을 깨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언더우드는 단순한 한국어 공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어 성경을 편찬하는 데 힘을 썼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신약성경을 거의 다 편찬했다. 하지만 도중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죽게 된다. 결국 언더우드가 대표위원이 되어 번역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신약성경을 완성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신 언더우드 선교사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선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적인 순종이다. 책의 표지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 “불꽃 열정으로 이 땅을 밝은 첫 선교사 언더우드”라고 적혀 있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복음화를 앞서 사역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좋은 본보기였다. 그는 일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고 헌신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도 주변 국가인 일본에서도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붙잡은 선교사이다. 만약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일어서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남겨주었다. 선교를 위한 단체인 YMCA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섰다.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 5. 버려진 선물

그러면 현재에도 언더우드의 열정이 이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까? 내 생각에는 일부는 버려진 것 같다. 마치 대한민국은 하나의 어린아이를 보는 것 같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가 금방 질려하고, 더 가지고 놀지 않듯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해 보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이라는 선물이 내팽개쳐지고 버려졌다. 중학교 3학년이 봐도 선물이 버려진 게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도 까먹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지만 적어도 조금이

라도 닳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도 지키는 게 어렵다. 그래도 닳으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친구도 사귀게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와 같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비방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욕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나의 마음은 찢긴다. 우리는 껌질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비록 어렵겠지만, 그 버려진 선물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도 다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YMCA와 같이 전도를 위한 단체가 있다. 아직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처럼 우리는 사역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2주 전에 학교에서 쉬는 날이 있어서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사역 단체인 사랑부의 캠프 자원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해 봤는데 사명감이 다들 높았다. 이것과 다르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자원봉사를 가봤는데, 그냥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목적인 봉사이긴 했지만, 봉사자들의 긴장이나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자. 교회에서는 자주 자원봉사 관련 홍보를 한다. 이때 “누군가는 해주겠지.”,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우리 학교 또한 같다. “이거 생기부 들어가냐?” 자원봉사보다 ‘생기부’가 우선시된다. 우리는 언더우드의 불꽃 열정을 닳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 또한 예배의 문화이다. 나는 방학 때 종종 유명한 찬양팀이 주최하는 예배에 가본다.

그러한 예배를 갈 때마다 생각이 든다. 예배당에 가보니, 나의 또래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내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러 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감정이나 음악이 앞선 예배가 되지는 않는가, 예배의 분위기가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본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찬양팀을 섬기는 친구이다. 이 친구는 찬양을 좋아하고 자주 즐겨 듣는다. 하지만 설교 때나 수련회 때 기도하는 시간에 보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은혜보다는 찬양의 집중을 하는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의지할 수단을 알려주기 위해 언더우드 선교사가 온 것이다.

## 6. 마지막 말

이 독서감상문을 끝내면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를 통해 이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글을 마친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기보다는 언더우드가 가졌던 그 순종의 열정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 다시 세워져 가길 기도한다. 이에 맞게 나 자신도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다. 『언더우드』라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유익한 책이었다. **한남**

## 아쉬움을 넘어선 은혜와 교제

가을이 절정에 달했던 2025년 10월 18일, 영락교회 안수집사회는 원주 소금산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케이블카, 출렁다리, 올렁다리, 잔도길 등은 안타깝게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코스를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집사님들은 아쉬움 대신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 교제 속에 피어난 웃음과 은혜

우리의 선택은 소금산의 또 다른 매력인 강변 산책로였습니다. 맑고 잔잔한 강물을 따라 걷는 시간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더욱 가까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정의



안창진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안수집사회 친교부 부장

안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감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등 평소 깊이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는 시설 이용의 공백을 완전히 메워주었습니다. 관광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구마 축제와 조각공원에서의 시간은 야유회의 백미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구마를 함께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물없이 어울리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소박한 기쁨 속에서 섬김의 참된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믿음의 끈으로 이어진 사랑의 공동체

이번 야유회를 통해 행복과 은혜는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볼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의 진실한 교제와 나눔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케이블카를 타지 못했지만 '믿음의 케이블'로 서로 연결되었고, 출렁다리를 건너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굳건한 공동체를 확인했습니다.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한 힘으로 영락교회 안수집사회는 앞으로도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만남**



## 잊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환대 나이를 초월한 '벗'들의 위로

강경화 사모 \_ WEC 국제선교회

영락수련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 '레마로 다가오는 예전', '기도로 준비된 예배' 등 모든 시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환대로 다가왔다.

소그룹 '벗들의 모임'에서는 그동안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묶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 이해하는 눈물과 위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 선배 사모님의 한마디에 용기를 얻으며, 우리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벗'이 되었음을 느꼈다.

잊어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해 준 영락교회와 수련원, 그리

고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섬김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왔다. 교회 안에서도 효율과 실리가 우선되는 요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다해 섬겨 주신 모든 사랑은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 마음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왔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10월 20일~22일 영락수련원에서 열린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수련회'

## 과거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는 사랑 영락수련회에서 회복한 가정 예배

강순천 사모 \_ 순천덕신교회

준비해 주신 따뜻한 환대 덕분에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풍성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흘러가던 일상을 돌아보며, 삶의 걸음마다 함께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잠잠히 느끼기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전, 저는 사랑이 없는 자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상길을 걸으며, 과거와 실패를 묻지 않으시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

는 기쁨이 제 안에 씨앗이 되어 사랑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갓들리플레이(Godly Play), 사모 멘토링 강의를 들으며 가족과 나눔을 결단하게 되었고, 돌아와 가정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분이 이곳 영락수련원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 난임, 최적의 치료전략은 현명한 준비와 제때의 도움

### 일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된 '난임'

현대 사회에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서울시에서 태어난 아기의 15%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성씨 중 이 씨의 비율(14.8%)과 비슷한 수준으로, 난임 치료가 이제 일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초혼 연령의 증가와 함께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진료 방법의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자연 교수  
차여성의학연구소  
마곡센터 임상조교수

### 난임병원 내원이 필요한 시점

전통적으로 난임 병원은 임신이 되지 않을 때 찾는 곳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예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원 시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임력 상담 단계**에서는 임신 계획 이전에 자신의 생식능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환자가 내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20대, 35세 이전, 35세 이후, 총 세 번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어 예방적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난임 진단 단계**는 피임 없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1년간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이며,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는 나이에 따른 가임력 감소를 고려한 의학적 판단입니다.
- **의학적 가임력 보존**은 항암 치료나 수술 등으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 국가에서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가임력 보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회적 가임력 보존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임신 얻기를 위해 젊은 시기에 건강한 난자를 보존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사유의 난자 동결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부부동반 내원해야

난임 원인에서 남성 요인 단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여성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50%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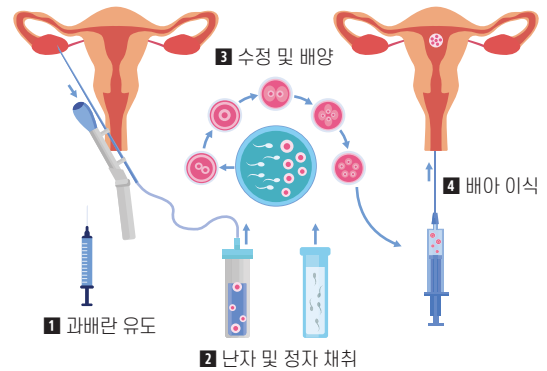
남성 난임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비만(BMI 30 이상), 흡연, 과도한 음주가 있으며, 내분비 교란 물질 노출, 대기 오염, 열 노출 등 환경적 요인과 갑상샘 기능 이상, 당뇨병, 성병, 정계 정맥류 등 의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난임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 체계적 진단 및 치료 접근법

난임 진료는 임신 과정의 단계별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자 평가를 위해서는 정액 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검사이며, 난관 개통성 평가를 위해서는 나팔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배란 기능 평가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궁내막 상태는 초음파 검사로 평가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인공수정과 시험관수술로 나뉩니다. 인공수정은 처리된 정자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궁강 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남성 요인이나 경미한 난임에 적용됩니다. 시험관수술은 체외에서 수정과 배아 배양을 거쳐 자궁 내 이식하는 과정으로, 보다 복합적인 난임 문제에 적용됩니다.

### 시험관(체외수정) 시술과정



### 임신성공률 떨어뜨리는 건 난자의 질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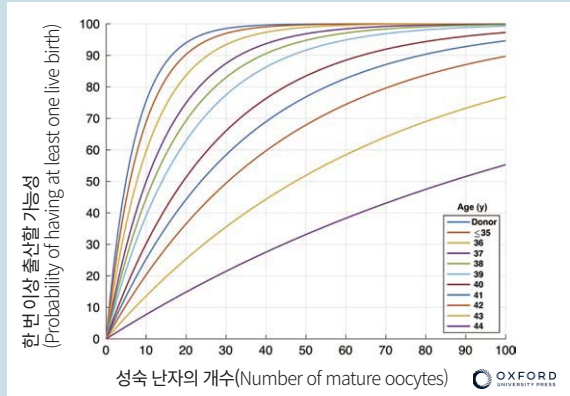
연령 증가가 가임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장기는 난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임신 성공률 저하의 주요 원인은 난자의 질 저하에 있습니다. 자궁 역시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연령에 따른 변화는 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난자의 양적 평가는 AMH(항물러관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질적 평가는 현재까지 생물학적 나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35세 이후 가임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염색체 이상 확률이 증가하므로, 연령에 따른 적극적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임력 보존하는 게 유리

난자 동결은 과배란 유도를 통해 다수의 성숙 난자를 채취하여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성공적인 출산을 위해 필요한 성숙 난자의 개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80% 이상의 확률로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35세에서는 약 14개, 37세에서는 23개, 40세에서는 45개 정도의 성숙 난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능

## 여성의 나이와 채취된 성숙 난자(난포) 개수에 따른 출산 가능성

(Live birth predictions by age and number of mature oocytes retrieved.  
Each curve shows the percent likelihood...)



이 그림은 나이별로 몇 개의 난자를 냉동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의 나이와 냉동 보관한 성숙한 난자의 개수에 따라 나중에 그 난자를 사용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30세 여성이 10개의 난자를 냉동했을 때와 40세 여성이 10개를 냉동했을 때의 출산 성공률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한 한 이른 시기에 가임력 보존을 시행하는 것이 유익함을 시사합니다.

###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최적 치료 전략 수립해야

현대 난임 진료는 단순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치료를 넘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생식건강 관리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가임력 평가, 남성 난임에 대한 적극적 접근,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전략, 그리고 적절한 시기의 가임력 보존이 현대 난임 진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난임 치료의 접근성과 성공률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현명한 준비’와 ‘시의적절한 도움’이라는 원칙 하에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이라는 심리적 허들을 낮추고, 더욱 많은 부부가 건강한 아기를 가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





## 2026년 달력 제작을 돌아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다.” 이 말씀이 2026년 달력을 제작하며 받은 감동입니다.

막연하게 홍보출판부는 교회 내 월간『만남』과 해마다 요람과 달력을 제작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정도만 아는 상태에서 차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교만하게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 사역은 ‘내 능력으로 나 혼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주현 부장 장로님께서 청년 전문위원들을 세워 주시고, 전년도 달력 제작을 주관하신 조지형 차장 집사님 및 실행위원 집사님들과 매주 미팅을 하며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콘셉트를 계획하고, 시안 제작을 위해 여러 작가분과 연락하며, 디자인 시안 제작, 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족함이 계속 발생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연히 임원회의에서 박지운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몇 장의 사진이 막막하던 기본 구성의 첫 단추가



이신일 안수집사  
서대문·은평교구  
홍보출판부 차장



되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회(기관단체 포함)의 아름다운 사진과 김운성 목사님이 미리 주신 이달의 말씀을 캘리화하여 조합하는 것을 기본 디자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80주년과 새로 시작되는 81주년이라는 콘셉트를 담기 위한 월간 배경이 될 사진의 선정, 월간 암송 구절을 제작할 캘리그래피 작가와의 계약, 제작 및 수정, 캘리그래피와의 합성 등 3개월간의 끊임없는 수정 작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영락의 성도 분들께 은혜롭고, 아름다운 2026년 달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작했습니다만, 부족함을 느끼시거나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새로 시작되는 영락교회 81주년에 교회의 역사와 지난 사역, 교회의 작은 부분까지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과정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 영락시어터 12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왕중왕** (King of Kings, 1961) **ALL** (상)100분 / (하)71분 **7, 14일**

감독: 니콜라스 레이 출연: 제프리 헨터, 시오반 맥켄나

유대인들은 예수가 로마를 몰아낼 구세주로 기대했지만, 예수는 세속적인 해방 대신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세속적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 결국 유다의 배신과 시기심을 가진 백성의 원로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폭동에 대한 우려 속에서 예수는 체포된다.



**프리쳐스 와이프** (The Preacher's Wife, 1996) **12** 124분 **21일**

감독: 페니 마샬 출연: 덴젤 워싱턴, 휘트니 휴스턴, 코트니 B. 밴스, 제니퍼 루이스, 로레타 드바인

가난한 목사 헨리 빅스와 성가대 리더 아내 줄리아. 명량한 성격인 줄리아는 남편 헨리가 바빠 파티에 참석할 시간조차 없자 결혼 생활에 지쳐간다. 이때 그들 가족 앞에 천사 더들리가 나타나고, 줄리아는 바쁜 남편과 달리 자상하고 포근한 더들리에게 점차 마음을 빼앗긴다.



**작은 아씨들** (Little Women, 1994) **15** 118분 **28일**

감독: 질리언 암스트롱 출연: 수잔 서랜든, 위노나 라이더, 클레어 데인즈, 커스틴 던스트

남북전쟁 중, 마치 가문의 네 자매(메그, 조, 베스, 에이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변을 도우며 살아간다. 4년 후, 작가 지망생인 조는 뉴욕에서 글을 쓰던 중 동생 베스의 사망 소식에 집으로 돌아온다. 조는 슬픔 속에서 글을 쓰게 되고, 그때 어린시절 친구 로리의 소식을 접한다.

특별상영 킹 오브 킹스, 베다니홀, 12/13(토) 오후 3시



**킹 오브 킹스** (The King of Kings, 2025) **ALL** 100분 **13일**

감독: 장성호 출연: 이병헌, 진선규, 이하늬, 양동근, 차인표, 권오중, 장광, 최하리

소설가 찰스 디킨스는 아서 왕을 동경하는 개구쟁이 막내아들 월터에게 진정한 왕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다. 월터는 어느새 2000년 전, 예수가 태어난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월터는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끝없는 사랑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점점 그에게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예수에게 닥쳐온 시련들과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월터는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진심을 깨닫게 된다.

## “가방을 열어보세요”

### 추수감사주일 예배 & 특별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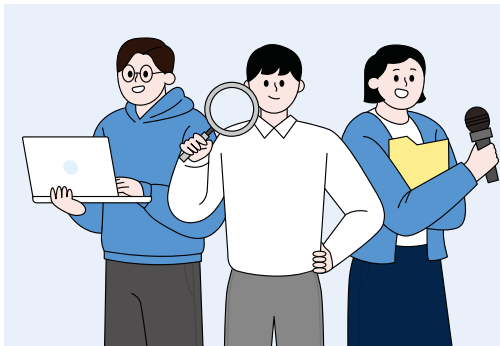
추수의 계절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졌다. 김운성 담임목사는 ‘달힌 눈이 열리는 때(누가복음 15:11~24)’라는 제목으로 “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늘 듣지만 귀가 막혀 못 들던 음성, 마음이 굳어서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가장 낮은 자리, 아픈 자리에서 눈이 열립니다. 내가 떠나 있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발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찬양예배는 추수감사 음악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로 드려졌다. 교회 8개 찬양대가 찬양대석과 2층에서 은혜로운 찬양 연주로 추수감사절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새벽기도회가 지난 11월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매일 새벽 본당에서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영락의 가족들은 참석해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요일별로 교구와 부서들이 찬양을 맡아 특색 있는 찬양을 드렸고,



대표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참석한 교우들과 영적 교감의 시간을 나눴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한 김운성 담임목사는 ‘가방을 열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바탕으로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는 영적 여정을 나누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것,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울이 지녔던 거룩한 자존감을 본받고, 우리 ‘인생의 가방’을 열어 욕심으로 채웠던 모든 것들을 비움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자.”고 권면했다.

박진현 기자



### 『만남』 기자 및 편집위원 모집 (자원봉사자)

**대 상:** 본교회 60세 이하 교인으로 취재, 편집능력을 갖춘 분  
(방송, 신문, 출판사 편집기자, 기획 등 유경험자 환영)

**문 의:** 홍보출판부(02-2280-0197)  
youngnak-hb@daum.net

##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비전기도회

교육부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1월 13일(목), 드림홀에서 고등부(부장 오동희 장로) 주관으로 대입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 중보기도를 위해 모인 성도 등 150여 명이 함께 비전기도회를 했다.

찬양을 시작으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 시험 영역별로 교육부 방덕종 목사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빌립보서 4:6~7)', 중등부 이종실 목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사무엘상 17:32~40)', 소년부 신주현 목사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이사야 43:17~21)' 고등부 이영호 목사의 '하나님 등 뒤에서(출애굽기 14:12~16)'로 이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수능을 위한 기도과 수능 이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신뢰의 기도, 능력을 구하는 기도, 개인 기도로 대학입시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윤미 기자

## 직장인예배 56주년 기념 예배 및 가을 음악회

전도부

전도부(부장 김무섭 장로)의 직장인예배는 지난 11월 6일(목) 낮 12시, 선교관 앞 베다니광장에서 직장인예배 56주년을 기념하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야외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성인 목사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음악회는 MC 유정현의 진행 아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김한길 피아니



스트의 반주와 함께 소프라노 윤정빈의 '마중'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연주자 이병란의 '반딧불', 바리톤 김승환의 '여러분', 이철규의 '오랜 친구', 장근희의 'Oh freedom' 등 풍성한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가난한 마음' 듀엣 무대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 이번 행사는 문화선교부와 전도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섬김으로 원활하게 준비되었으며, 음악회 후 제공된 샌드위치와 생수 200인분은 직장인 성도들의 교제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직장인들에게 영적 심과 문화적 위로를 전했다. 다음날 11월 7일(금) 열린 직장인예배 56주년 기념 예배는 김운성 담임목사의 설교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으며, 5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일본 타마가와 여고생들, 영락교회 방문하다

호산나찬양대

지난 10월 29일(수) 미션 스쿨인 타마가와성학원(玉川聖学院)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0여 명이 수학여행 중에 영락교회를 방문했다. 호산나찬양대와의 20년에 걸친 한일 선교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왔다. 저녁 6시부터는 드림홀에서 예배와



간증, 그리고 조별 토의(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토론하는)로 이어지는 교류회를 가졌다.

간증은 영락교회 장재영 성도와 타마가와 심유리(沈柔悌, 재일 교포) 학생이 발표했는데, 한국 발표자는 일본어로, 일본 발표자는 한국어로 발표했다. 연례행사로 진행해 왔지만 일본 학생이 한국어로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조별 토의에서 타마가와 학생들은 영어 또는 일본어 질문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작년보다 늘었다. 학교 동아리 활동 중에는 '한국어 동호회'도 있다고 한다. 벌써 내년 만남도 기대된다.

유승현 집사

## 2026 항존직 선거… 장로 3명, 안수집사 13명 피택

선거집행위원회

2026년 항존직 선거가 지난 11월 2일 주일(1차 투표)과 9일(2차 투표) 양일간 봉사관 1층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진행되었다. 1차 선거는 당회 공천 순으로 정해진 후보자를 성도들에게 공보하여 투표했다. 2차 선거는 1차 투표 결과 득표순으로 1.5배수 후보자를 공보하여 투표한 결과 장로 3명과 안수집사 13명이 최종 피택되었다. 전산개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1차 2,937명, 2차 3,118명 총 6,055명의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출된 피택자들은 내년 한 해 동안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 2026년 12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장로 장립과 집사 안수를 받는다.



### 2026 항존직 선거 피택자

**장로 피택:** 최현우 조민태 이영진

**안수집사 피택:** 임성근 소상균 박진태 김유민 승민성 황영준  
이수관 김길재 김형태 김한준 김임진 박인근  
김의성

# 수태고지, 성탄을 여는 가장 놀라운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진" 우리 구주 아기 예수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31)*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38)*

## 수태고지 Annunciation

1472~1476년 제작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0대 초반에 완성한 <수태고지>입니다. 이 그림은 성경 속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바탕을 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순간입니다.

왼쪽 화면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공간 속으로 마치 하늘에서 막 내려앉은 듯한 날개를 가진 대천사 가브리엘이 한쪽 무릎을 꿇고 나타나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백합은 마리아의 순결을 의미하며, 마리아의 순수함과 태어날 예수님이 세상의 순결한 구원자임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는 여인은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손가락으로 성경 구절을 짚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천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에는 놀라움 너머의 침착함이 보입니다. 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빈치는 이 신성한 사건이 마치 피렌체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일어난 듯, 르네상스 당시의 현실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12월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만남**

이은혜 권사 \_ 성동·광진교구

### 2025년 12월호 통권 620호

발행 2025. 12.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독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사진기자 박흥기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김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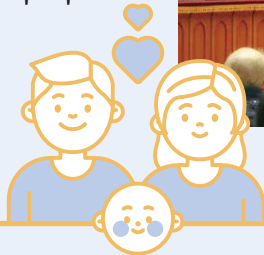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 「만남」 e-Book

#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10월



## 새아기



- 1 박소미(박준연, 김한나 가정)
- 2 박유온(박찬양, 오주빌리신희 가정)
- 3 안한나(안하은, 마크 데빈 폭스 가정)
- 4 허지우(허원석, 권영 가정)
- 5 이해튼(이동찬, 안성현 가정)
- 6 최다겸(최재언, 민혜영 가정)
- 7 김이안(김정훈, 이수지 가정)
- 8 치하미(치중, 조은샘 가정)







## 수태고지 | (Annunciation, 1472~1476)

레오나르도 다빈치 (Leonardo da Vinci)